

월요광장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



김찬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는 지역 문화정책의 화두이다.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조성하며,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구에 있어 도시재생이란 철강이나 석탄 산업과 같은 2차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산업쇠퇴로 인해 인구가 줄고 도시가 황폐화된 상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건립, 영국 게이츠헤드의 타인강변의 개발, 독일의 대표적 관광지역인 에센의 홀퍼라인 지구의 문화적 개발 등등을 들 수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했던 도시에 대규모 관광산업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도시의 활력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큰 틀에서 서구와 다르진 않지만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에 초래된 심각한 공동화 현상의 해소방안으로 90년대부터 이러한 정책이 대두되었다.

광역시도들은 대부분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원도심은 과거의 활력을 잃고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도시 역시 대도시로의 인구이전으로 도시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원도심의 재생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원도심은 도시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그리고 도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를 계승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원도심의 경제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가장 손쉽게 등장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벽화마을을 조성이다. 벽화마을은 대개 경제적으로 열악한 도시 주변부지역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서

울 이화동, 통영 동피랑, 수원 행궁동을 비롯해서 전주의 자만마을, 광주의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화순 성안마을, 순천 남재골 벽화마을 등등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이며, 현재도 많은 벽화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작품의 수준이 낮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도 무관하며, 후속관리 미흡으로 도시의 새로움 공해가 되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다른 재생방식은 대형 물류창고 등과 같은 도심의 유희시설을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도심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서울 금천아트센터, 인천 아트플랫폼, 광주 연초제조창과 동부창고, 대구 예술발전소 등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관주도형 대형프로젝트로서,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창작 발표공간을 겸하고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예술가 등 창조계층들이 모여들게 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 문래동 철공소 지역에 조성된 문래아트벨리가 같이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예술촌을 조성함으

로써 지역을 재생시킨 사례도 있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작가들의 집단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된 뒤, 작품 발표공간과 커뮤니티 센터,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자생적인 예술타운을 조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을 대형 주상복합단지로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 아트벨리가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 지역을 자본논리로 무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도시재생은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이슈로서 도시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관주도적 프로그램들은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지만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분명한 성공사례나 전범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창조계층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자신들의 창작공간과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추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지역의 상업화로 인하여 창조계층들이 내몰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문화지구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메르스 순창까지, 광주·전남 차단 총력을

전북 순창에서 70대 여성이 지난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로 확인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순창은 담양군과 접해 있는데다 광주에서 20~30분 거리에 있어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순창군 A마을에서 72세 여성이 메르스 1차 감염 양성환자로 판명돼 이 환자가 사는 마을 전체를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마을 전체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메르스의심 환자였던 이 여성은 지난 달 22일 경기도 평택의 모 병원에서 퇴원하며 이들의 집에서 생활하라는 자가 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곧바로 순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14일 동안 마을 주민들과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촉하며 생활해 왔다. 이 여성이 접촉한 마을 주민은 105

명이나 된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부실 대응이 메르스 확산을 방치한 셈이다.

순창과 지적에 있는 광주·전남으로선 메르스가 남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는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을 앞두고 있어 선수단 불참 등 대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로 대만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체육당국에 한국의 메르스 확산이 심각해지면 광주U대회에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아닐 수 없다.

광주와 전남도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메르스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또 행정 및 의료기관, 시민까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메르스 방지에 나서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병상 확보와 차 단책 등 대응책을 확보해야 한다. 철저한 대책과 대응만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시설 개선은 손 놓고 수도요금만 올린다니

오는 8월부터 광주지역 상수도 요금이 평균 7.5%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지난 2013년 평균 6.42% 인상된 이후 2년 만이다. 광주시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물 정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실적에 극히 저조하다.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 강관 등으로 돼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세척작업을 위한 정수구 설치 사업도 ‘찜해 온 고(故) 남부 김남중 선생의 모습을 보았다.

다행히 지난 5일 광주일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건설업체가 아닌 행남자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한다. 신문에 대한 사망 의식,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정과 재원(財源)까지 갖춘 새 사주(社主)를 기대해 본다. 또 이번 일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정론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호남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바란다.

다. 누수율도 1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지만 예산난을 핑계로 교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누수율이 3%대에 불과하다. 사용 기간이 오래된 노후관의 경우 누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파열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다. 관내 부식에 따른 녹 발생으로 각종 미생물과 세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식 수도관을 예산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한 수도물 음용에 큰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책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 관리로 수도물 공급 비용을 낮추는 데도 힘써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기고

전통과 역사의 광주일보! 제자리 찾기를 응원한다



양홍  
독사·수필가

1950년대 필자의 선친께서는 두 가지 신문을 구독하셨다. 중앙지는 D일보, 지방지는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였다. 그래서 필자 역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신문을 접하며 성장했다. 그래서 세상을 어릴 때 꿈이 언론인이었다. 내가 말하는 언론인이란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언론인에게는 독특하게 풍기는 매력 이 있다. 일찍부터 이들을 가리켜 ‘무란의 제왕’이라 했다. 무란한 힘의 상징이다. 또 ‘정부의 제4부’라 했다. 그만큼 사회에 필요한 ‘공기’(公器)라는 의미를 담는다. 언론의 뿌리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신속하고, 용감함이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성(魔性)의 매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언

론인에게도 상전(上典)은 있다. 그것은 독자들이다.

독자는 일반 대중이다. 독자 없는 언론은 다스릴 백성 하나 없는 껍데기 제왕일 뿐이다. 언론이 독자를 잃고 있다면, 이는 믿음이 떠나 일찌감치 레이더에 빠져버린 정권과 다를 아니다. 독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언론은 죽은 권력이다. 썩은 내 나는 송장에 불과하다.

필자는 고희의 나이로 정년퇴임을 하고 확장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마음의 고향 광주에 내려와 사랑하는 아내, 큰 아 들네 식구들과 함께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곳에서 몇 가지 성향의 신문을 선택하여 구독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광주일보이다.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권력과 대결하며 피곤에 찌든 언론인의 민낯보다 더 용감해 보이는 얼굴은 없다. 바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 속에 자신을 던져 넣는 기자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이따금씩 스스로를 희생하며 골고다 언덕을 걸으며 ‘예수’의 지친 얼굴이 함께 떠오른다. 전쟁터의 중군 기자나, 각종 재난의 현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기자의 얼굴에서

나는 희망을 본다.

부정의한 일을 그대로 볼 수 없어 파헤치다가 금력(金力)과 권력(權力)에 기(氣)눌러 어물어물 덮어두는 언론인보다 더 가련해 보이는 것은 없다. 언론이 개인의 선전지가 되거나 단체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때처럼 독자에게 외면 받고 고독해질 때는 없다. 독자들은 그럴 때마다 언론의 추함을 절망한다. 그런 신문을 받아 보는 독자들은 ‘질소를 사고 과자를 덤으로 받는다’ 요즘 아이들처럼 배신감에 실망하기 마련이다. 영양가 있고 맛도 좋은 식탁이 함박웃음을 짓게 하듯, 지식이 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보다 진실에 가까운 신문을 배울 때면, 마냥 기분이 좋다. 하지만 기다려지지 않는 신문의 구독을 강요받을 때처럼 궁색한 말을 들을 때도 없다.

‘참 언론’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환영 대신 거절을, 박수 대신 중고를 받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저널리스트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처럼 값진 것도 없다. 독자는 신문에서 글이 아닌 그 땀과 수고를 읽는다.

지난 5월 29일자 광주일보를 대하면서 지령 20001호의 기록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했는지 마음을 다해 축하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이홍재의 세상만사’,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를 반대한다’는 광주일보 노조의 성명, ‘사주는 누가 되어야 하나’라는 사설까지 연일 공개 되니, 안타깝고 슬펐다.

광주일보는 우리 호남인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이다. 바른 언론 없는 정직한 시민은 있을 수 없다. 언론은 창달(暢達)되어야 한다. 충고의 편달에 눈, 귀를 막은 언론보다 사회에 해로운 것은 없다.

나는 과거 잘못된 사주로 인한 악순환을 경험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몸부림치며 광주일보 노조원들의 외침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때 그들의 모습에서, 초대 회장이며 점 편집인으로서 필자가 존경해 온 고(故) 남부 김남중 선생의 모습을 보았다.

다행히 지난 5일 광주일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건설업체가 아닌 행남자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한다. 신문에 대한 사망 의식,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정과 재원(財源)까지 갖춘 새 사주(社主)를 기대해 본다. 또 이번 일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정론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호남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바란다.

법조칼럼

그 녀석의 추억



공두현  
광주지법 판사

첫 마음. 판사로서의 첫 마음은 어렸을 때. 판사가 되어 처음 쓴 판결문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내가 쓴 판결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시절 국선번호를 맡아 변호인으로 표시된 판결문이 눈에 띄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2개월간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되는데, 국선번호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내가 담당하게 된 첫 사건은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은 시커먼 스톨세 살이었다. 피고인의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 그 녀석이라 부른다.

구치소에 찾아가 접견을 하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 그 나이의 절도범들이 대개 그렇듯이 집안 형편은 좋지 못했고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몇 번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 그 녀석이 연락을

해왔다. 구치소에 급히 다시 접견을 와달라라는 것이었다. 막상 접견을 가보니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 그저 심심했거나, 사람이 그리웠나보다. 약간 황당하기도 했지만 접견을 간 김에 이런 저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신문 때 질문할 내용을 말해주며 판사님께 할 이야기를 잘 준비하라고 하자 그 녀석은 자기가 그런 건 잘 알면서도 녀석을 부린다.

드디어 재판 날. 정말 그 녀석은 너무 과장되지 않게 슬프고도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며 힘들었던 사정들을 이야기한다. 나도 비장하게 최후변론을 준비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면서 두 가지 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가 하얗게 썬 나이든 도둑의 모습입니다. 한 손에 짬을 수도 없는 열 개 열한 개의 전과를 들고, 돈 몇 만 원, 과일 몇 개를 훔쳐다 는 이유로, 감옥을 드나들어도 탄원서 한 장 써줄 사람 없는 그런, 흔한 절도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석유배달, 주방보조,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던 경험, 2007년 폴리텍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곧 자퇴하게 된 사연을 말했다.

“피고인의 이런 점들을 보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미래에 좋은 일거리를 얻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에게 실행을 선고하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고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피고인을 다시 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것이 피고인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한 더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녀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희희낙락 나를 찾아와 한우고기도 얻어먹었다. 선처를 해주신 재판장님께는 죄송하게도 폴리텍 대학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6개월쯤 지났을까.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전과가 왔다. “저 경찰서인데요...” 이번에도 절도다. 빈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왔다. 한. 끝지가 아프다. 어차피 실행이니 조용히 반성하고 징역 잘 다녀오라고 말해준다. 휴가를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갔더니 제법 놀라는 눈치다. 뭐라고 혼을 내줄까하다가 그저 농담을 건넜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 녀석은 다시 출소를 했다.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따고 트럭 운전 일을 시작했다. 저축을 하고 그렇게 말해도 별로 돈은 모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운전 일을 계속하며 성실해,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다.

그 후 판사가 된 나는 형사 합의, 형사 항소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정말 아깝게도 나는 내가 처리한 절도 사건 피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한다. 말려드는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엔 어쩔 수 없기도 하다. 그때, 법정 밖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법정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는지, 인생사의 복잡한 풍경들을 어떻게 법대 위에서 다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법정 진출과 준비서면에 나오지 않는 그 무엇 너머에 또다른 ‘그 녀석’의 꿈과 한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싶다. 판사라면 누구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있으려나. 가끔 연락이 닿는 녀석 좋은 그 녀석이 알리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판사로서의 첫 마음을 생각하다가 판사도 아닌 사법연수원생 시절 만난 그 녀석과의 추억을 떠올린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잘린 머리의 눈썹과 입술에서 5~6초간 불규칙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얼굴의 근육이 처지고 눈꺼풀이 약간 열렸는데 흰 자위부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자 눈꺼풀이 조금 열리면서 마치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날 때처럼 느리고 미세한 움직임 보였다. 이윽고 그가 그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공은 좁아져 있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무표정한 눈빛은 아니었다.

상 처음으로 ‘머리 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지난 1905년 프랑스에서 ‘볼리오’라는 의학박사가 사형수의 잘려나간 머리를 조사하고 쓴 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크게 부르자 두 번째까지는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다 단혔다고 한다. 하지만, 세 번째는 아무리 불리도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목이 잘리고 30초가 지나지 안구는 유리알처럼 변했다.

몸에서 잘려나간 머리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머리에는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지만 2분 정도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그 후에는 죽는다. 문제는 그 마지막 2분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인식하느냐의 여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산 자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프랑켄슈타인 수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희귀병을 앓는 러시아 컴퓨터과학자가 오는 2016년께 역사상 처음으로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 의사이자 카타네로 박사로, 그는 이미 ‘프랑켄슈타인 의사’라 별명까지 얻었다.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누가 그 신체의 주인인지’를 비롯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한다면 죽은 너머의 세계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혼이 있는지, 있다면 신체의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오래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